

TV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孤独のグルメ)〉 연구

- 그림자의 배제와 탈역사적 일본의 유통

허재홍*

1. 서론
2. 공복 앞에 지워지는 낭만적 쇼와
3. 홍보를 위한 격렬한 독백과 과식
4. 쌀밥에 재현된 탈역사적 일본
5. 결론

국문초록

〈고독한 미식가〉는 일본의 TV 드라마로 한국에서도 10년 넘게 방영된 인기 시리즈다. 이 드라마는 고급 음식점보다는 서민 음식점을 배경으로, 요리장인이나 평론가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평범한 중년의 신사가 음식의 맛에 대해 담백하게 감탄하는 점이 기존의 미식 서사물과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 글에서는 〈고독한 미식가〉를 구성하는 기호들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에 내재된 주제들을 천착해내려 하였다. 특히 드라마의 식사 장면 외에도 적잖은 분량을 차지하는 산책 장면으로까지 시선을 넓혀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확장해보았다.

본고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 이노가시라 고로는 과거 지향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고, 산책에서도 과거에는 긍정적인, 현대에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좋았던 과거에 대한 향수는 종종 ‘쇼와’로 표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강사

현된다. 이는 좋았던 시절에 대한 낭만적 시선에 그치며 식욕 앞에서 쉽게 잊힌다. 둘째, 식사 장면에서 주인공은 긍정적인 자세만을 취한다. 이는 섭외된 식당의 홍보가 드라마 제작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식사 장면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홍보가 되면서 제작진은 기존의 미식 서사물과 변별되는 연출법을 활용한다. 주인공의 독백과 식사의 양이 증대되고, 메뉴판이나 식당 손님들의 메뉴 선택도 주목되고, 자막으로 음식에 대한 기대가 함께 제시된다. 셋째, 여러 장면에 걸쳐 일본적 정체성이 강조된다. 산책뿐 아니라 식사 때도 주인공은 일본인임을 여러 번 실감하며, 쌀밥은 그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고독한 미식가>는 역사와 거리, 음식 등 일본의 여러 얼굴을 전시하면서도 그 긍정적인 면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보기에 편안하지만 동시에 탈역사적 드라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고독한 미식가>의 인기는 이 드라마가 일본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통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고독한 미식가, 일본 드라마, TV 드라마, 노스텔지어, 미식 서사)

1. 서론

이제 떡방¹⁾은 매우 일상적인 콘텐츠다. 굳이 음식이나 요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도 먹는 장면은 흔히 보인다. 이런 경향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TV 드라마에서 두드러진다. 일본의 TV 드라마를 수입·제공하는 도라마 코리아의 OTT 서비스는 <와카코와

1) '먹는 방송'을 줄여 이르는 말. 출연자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 다음 어학사전 우리말샘 참조.

술(ワカコ酒), <흰밥 수행승(しろめし修行僧)>, <포상밥(ごほうびごはん)>, <실연밥(失恋めし)>, <선생님의 주문배달(先生のお取り寄せ)> 등 음식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독한 미식가(孤独のグルメ)>²⁾는 한국에서도 10년 넘게 방영되고 있는 장수 시리즈다. 이 작품은 쿠스미 마사유키(久住昌之)가 스토리를 맡고 다니구치 지로(谷口ジロー)가 작화를 맡은 동명의 만화를 원작³⁾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TV도쿄에서 시즌10까지 방송되었다. 드라마를 나와 비아(非我)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고독한 미식가>는 연전연승의 드라마다. 주인공인 이노가시라 고로(井之頭五郎)는 작중 모든 음식에 만족하기에 그와 음식의 조우는 패배가 전무한 대결이랄 수 있다. 그렇기에 본작은 갈등을 통한 긴장이나 서스펜스가 제거된 소소하고 건조한 이야기로 생각될 수도 있겠다. 이노가시라 고로 역을 맡은 마츠시게 유타카(松重豊)조차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는 “이걸 누가 봐?”라고 생각했⁴⁾다고 한다.

물론 <고독한 미식가>는 일견 “그저 아저씨가 밥 먹는 내용일 뿐”⁵⁾이다. 하지만 시리즈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열 개의 시즌이 제작되었을 정도로 꾸준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심야에 편성되었음에도 매 시즌 4%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시즌6부터 매년 말일에는 특집편이 편성되어 <홍백가합전>과 같은 일본의 전통 연말 프로그램과도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⁶⁾ 한

2) TV도쿄 제작 <고독한 미식가> 시즌1-10, 도라마 코리아(OTT), <https://www.dorama.kr>, 2012.1.5.-2022.12.23.

3) 다니구치 지로·쿠스미 마사유키, <고독한 미식가>, 박정임 역, 이숲, 2010.

4) <흰밥은 결핍 아닌 자유...고독한 식사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죠>, 『매일경제』, 2022.8.23., <https://www.mk.co.kr/news/economy/10432284>, 2024.1.30.

5) 마츠시게 유타카의 시즌5 한국판 방영 기념 인사말.

6) 연말에 방영되는 특집편은 이노가시라 고로가 예기치 못한 출장을 떠나며 밥을 먹는 6, 70분 가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시청률은 4.6%다.

국에서도 꾸준히 방영되는 중이다. 채널 J와 도라마 코리아, 웨이브, 쿠팡 플레이를 통해 시즌 10까지 공개되었으며, 2018년에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초청작을 수상하여 마츠시게 유타카가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독한 미식가>는 다수의 언론 기사와 인터넷 게시글을 만들어 낸 인기 시리즈다.⁷⁾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원작 만화에 대한 논의로는 시바 이치로(柴市郎)⁸⁾가 있다. 그는 원작의 식사 장면에서 일본적 향수가 식욕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읽어내고,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식사는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논한다. 권두현⁹⁾은 일본의 대중서사가 감각의 활성화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을 분석한다. 그는 원작이 노동사회에서 탈노동사회, 즉 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환을 보여준다고 논한다.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는 임형재와 이토 스미코¹⁰⁾의 논문이 있다. 연구자들은 <고독한 미식가>의 자막에는 스토리의 전개나 내용 감상의 목적 이외에도 일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아저씨 먹방이 인기 끈 이유>, 『매일경제』, 2018.1.11., <https://www.mk.co.kr/news/world/8148731>, 2023.12.22.;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인들이 2017년을 마무리하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 대신 <고독한 미식가>를 시청하는 현상이 흥미롭다고 논했다. “New Year’s Eve in Japan: Watching a hit TV show about a man who eats alone”, The Washington Post, 2017.12.6.,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ew-years-eve-in-japan-watching-a-hit-tv-show-about-a-man-who-eats-alone/2017/12/21/116c56f2-e10a-11e7-b2e9-8c636f076c76_story.html, 2023.12.22.

7) <나혼자 이렇게 산다⑤> 자막 찾아 해매지 않고 본 '고독한 미식가', 『그린 포스트 코리아』, 2019.9.15.,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86#google_vignette, 2024.1.10.

8) 柴市郎, 『『孤独のグルメ』私論 -〈彷徨〉する〈空虚〉-』, 『尾道大学日本文学論叢』(2011年度まで)(2), pp.1-7, 2006.12., <https://onomichi-u.repo.nii.ac.jp/records/341>, 2024.1.2.

9) 권두현, 「맛의 경험과 테크놀로지의 신체 - 1980년대 이후 한일 대중서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67권, 국제어문학회, 2015, 71-111쪽.

10) 임형재·이토 스미코, 「OTT시대, 문화 간 소통을 위한 자막의 구조 변화와 기능 연구: '고독한 미식가'(시즌9)의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6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477-505쪽.

본어와 일본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의도적 목적이 있음을 밝혀낸다. 이상의 논의들과 이외의 언론 기사들은 <고독한 미식가>를 이해하고 본고의 논의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은 <고독한 미식가>의 10개의 시즌을 텍스트로 삼고, 이를 구성하는 기호들을 분석함으로써 발견되는 주제들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제목에서부터 '미식'이 강조되는 만큼 현재까지의 언론 기사와 논의들은 식사 장면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독'에 주목해보면 다른 모습들이 포착된다. 드라마에서 이노가시라의 걷는 장면은 먹는 장면 못지않게 강조된다. 텍스트는 주인공의 산책과 고객과의 상담(商談), 그리고 식사로 이어지는 액자구조를 이루고 있다. 액자는 주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좌표를 고정하고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는 고독하게 식사할 뿐만 아니라 고독하게 걷는다. 그러므로 제목의 '고독'과 주인공의 산책은 텍스트의 주제와 무관할 수 없을 것¹¹⁾이다. 주인공이 식당에 이를 때까지 마주하는 거리의 풍경, 이에 뒤따르는 그의 사고와 감각은 텍스트의 주제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리라 본다. 여기에 식사 장면의 분석을 보탬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 주인공이 식당을 찾을 때까지 마주치는 풍경과 그에 대한 전달 방식이나 태도들의 공통점에 착목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미식'의 변주를 살펴본다. 식사 장면에서의 대화와 독백 그리고 자막 등을 살핌으로써 텍스트가 실제 식당의 흥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살핀다. 4장에서는 전 시리즈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일본'과 '쌀밥'의 묘사에 천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스

11) 제목은 텍스트의 핵심 의미를 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신자들이 지니게 될 기대지평의 한 부분을 생성하게 된다. Manfred Pfister, *The Theory and Analysis of Drama*, John Halliday t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42.

텔지어¹²⁾와 일본 식문화¹³⁾에 관한 논의들이 본고의 전개에 참고될 것이다. 특히 쇼와(昭和)¹⁴⁾, 일본, 일본인이라는 단어는 <고독한 미식가>의 여러 장면에서 반복되고 있다. 반복은 응집장치로, 다소간 이해가 어렵거나 함축적인 이야기들도 추정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¹⁵⁾ 쇼와, 일본은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러 장면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가 역사에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복 앞에 지워지는 낭만적 쇼와

주지하듯 <고독한 미식가>에서 증핵은 이노가시라의 식사 장면이다. 하지만 이노가시라의 산책과 상담 장면 역시 비중과 분량 면에서 적지 않다. 회차마다 길이와 비율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절반에 육박한다. 시즌1 1화의 러닝 타임은 21분인데, 이노가시라는 12분이 지나서야 식사를 시작한다. 2화에서도 10분이 지나서 젓가락을 든다. 3화에서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역시 10분이 지나서다. 시즌3에서는 일시적으로 분량이 늘어나면서 디저트를 먹는 장면이 추가되지만, 3화를 예로 들면 이노가시라가 디저트를 먹는 장면은 초반의 4분 남짓, 그 이후로는 14분 40초가 되어서 와사비 덮밥집에 들어선다. 시즌과 에피소드별로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12)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13) 아사쿠라 도시오, 『일본음식 인문학 연구노트』, 김규열·김용의·유재연 역, 민속원, 2022.

14)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 124대 쇼와 덴노의 재위기간 동안 일본에서 사용된 연호.

15) Hugo Vowels, *Storytelling and Drama: Exploring Narrative Episodes in Plays*, Amsterdam: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2010, p.97.

따라 산책 장면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텍스트에서 주인공이 식사를 하기
에 앞서 반드시 선행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이노가시라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의 인물이다. “결혼과 똑같이
가게 같은 걸 열면 지켜야 할 게 늘 테니 인생이 무거워지겠지”¹⁶⁾라는 독백
에는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추구하는 그의 인생관이 드러난다. 그는 수입잡
화상임에도 매장이 없으므로 고객들을 직접 만나며 영업을 하고 자연히 여
러 장소를 방문하게 된다. 자가용보다는 지하철과 열차를 선호하는 그는 자
연스레 산책자로서 도쿄의 이곳저곳 그리고 일본의 여러 현(県)을 걷게 되
며, 그가 보는 풍경과 그에 대한 감상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카메라는 이노가시라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풍경들을 전시한다. 이노가
시라는 아사쿠사(8-6)에서 명물인 인력거를 타보기도 하고, 닛포리(1-11)
에서는 스카이 트리를 바라보고 감탄한다. 오사카(6-1) 편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인 츠텐카쿠 타워가 화면에 잡힌다. 방문 지역의 랜드마크나 명
물들을 소개하기에 <고독한 미식가>는 지방 소개 프로그램 같은 역할도
일부 수행한다. 출장지의 유명 관광지는 이노가시라의 시선이나 배경으로
등장하고 특산품이 식탁에 오르기도 한다. 돗토리현(8-8)의 사구에 올라
동해¹⁷⁾를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나 시즈오카현 카모군(3-3)에 들러 와사
비 덮밥을 먹는 모습이 그렇다.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은 모두 이노가시라의 개인적 감상을 경유
하기 때문에, 그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텍스트가 지닌 주제의 한 단락을 노
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노가시라는 풍경에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지

16) <고독한 미식가> 시즌1 1화, 앞으로 텍스트의 내용이나 대사가 언급될 때는 시즌과 회
차를 괄호에 표기한다.

17) 방송에서의 대사는 “니혼카이(日本海)”지만 한국 방영분에서의 자막은 “동해”로 표기
되었다.

살펴보자. 원작의 주인공에게서는 댄디즘적 면모가 드러나는데,¹⁸⁾ TV 드라마에서는 이런 태도가 훨씬 누그러진다. 선배의 부부싸움을 보면서 불편해하기도 하고(5-3), 갑자기 자신에게 선을 보라고 권하는 고객 앞에서 난처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험담까지는 하지 않는다.¹⁹⁾ 오히려, 자신에게 갑질을 한 거래처 직원이 딸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모두 있어서 인간인가”(1-5)라고 미소짓기도 한다.

이노가시라의 독백에 드러나는 다정한 면모는 대상이 거리의 풍경일 때 더욱 적극적이고 활기를 띤다. “이케부쿠로는 어렸을 때보다 싫지 않다… 조금은 산만하고 잡다한 느낌이 지금은 나쁘지 않다”(1-3)라고 변화한 심정을 밝히기도, 케이힌 공업지대를 보며 “이대로 계속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1-8)고 감탄하기도, 시모키타자와에서는 “여전히 너저분한 동네군. 그게 좋지만 말이야”(1-9)라고 말하기도, 에도가와바시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상점가가 숨겨져 있었군”(3-4)라고 흐뭇해하기도 한다.

이노가시라의 산책이 길어질수록 그의 독백에는 한 가지 감정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바로 과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리고 현재에 대한 소극적 거부다. 이노가시라는 비언어적인 면에서도 과거지향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²⁰⁾ 시즌이 진행될수록 중년에서 초로로 변해가는 그는 약동하는 젊음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노련함이 더욱 돋보이는 인물이다. 그가 사용하는 소품들도 과거지향적이긴 마찬가지다. 시즌10까지도 피쳐폰을 사용하며 같은 시즌 5화부터는 오래된 자동차 모델인 ‘오스틴 미니’를

18) 권두현, 앞의 논문, 23쪽.

19) “이거, 곤란했어. 첫 대면을 하는 사람에게 선보라는 권유를 받을 줄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20) “인물을 통한 암시적 기법에는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이 있다. 비언어적인 것이란 인물의 태도, 행동, 외양, 표정, 의상, 소도구, 극적 공간 등을 통해 인물을 형상화하는 기법이다.” 이상란, 『희곡과 연극의 담론』, 연극과 인간, 2003, 94쪽.

탄다. 지하철역에서 약속장소까지 이동할 때도 암기 혹은 약도에 의지한다. 무엇보다 주로 빈티지 소품을 취급하는 그의 업무 내용 역시 과거를 다루는 일인 것이다.

이노가시라의 과거지향적 태도는 골목이나 시장을 걸을 때 더욱 강렬해진다. 그는 코바고메의 거리를 걸으며 “소리, 냄새, 분위기”에 끌려 영문도 모른 채 “이 마을에 향수를 느끼”다가 거리의 할아버지들에게 붙잡혀 장기를 두며 어린 시절을 추억한다(1-2). 반면 현대적인 풍경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 반감에 가까운 독백을 뱉는다. 가와사키 신마루코역을 나서자마자 무사시코스기 빌딩을 보면서 “갑자기 저만큼의 주민이 외부에서 들어와 내려다보는 마을은 괜찮은 걸까?”(2-1)라고 우려를 표한다거나 시부야를 헤매며 “전혀 와 닿지 않아. 내가 후다닥 밥을 먹을 가게는 이제 동네에는 없는 걸까?”(6-7)라면서 실망하는 식이다.

과거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독백에서 특히 자주 반복되는 시대가 있다면 바로 ‘쇼와’다. 이노가시라는 요코하마시의 오래된 전통 시장을 걸으며 “이 상점가,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된 현역이군. 기뻐지는데. 쇼와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았어”(2-5)라고 흐뭇해하고, 아카바네의 오래된 건물을 보면서도 “쇼와로군”(3-1)이라 독백하며 히가시나카노의 거리를 “쇼와의 거리”(3-5)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고독한 미식가>를 ‘쇼와 노스텔지어’²¹⁾ 현상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쇼와라는 단어는

21) “쇼와 시대가 종언을 고한 지 어느덧 30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에는 ‘쇼와’가 넘쳐흐르고 있다. TV 프로그램, 영화 등에서는 쇼와 시대를 다룬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잡지나 신문에서는 쇼와 시대에 대한 특집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히 ‘쇼와 노스텔지어’라고 칭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결코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쇼와 노스텔지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손장희, 「일본 대중음악사 서술에서의 쇼와-헤이세이 시대의 도식화: ‘쇼와 가요곡’ 노스텔지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제22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8, 10쪽.

자주 반복되나 그 기억과 매력이 무엇인지 정치하게 묘사되지는 않는다. 이노가시라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고객이다. 그에게 있어 풍경이란 경유하며 잠시 관찰하는 대상일 뿐 몰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반복되는 쇼와가 무엇을 함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쇼와 노스텔지어'란 "쇼와 30년대, 40년대를 중심으로" "21세기 초두 전후 이후에 대량으로 생산되어 폭넓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문화현상"²²⁾이다. 여기서 쇼와 3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쇼와 30년대는 1955년 이후로, 일본이 전후의 상흔을 딛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는 21세기 초두 전후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시절과 대비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쇼와 노스텔지어란 쇼와 30년대 이전의 제국주의의 그림자는 지운 채 과거를 편식하는 현상²³⁾이면서 잃어버린 30년과 대비되는 '좋았던 옛날'을 추억하는 것이다.

이노가시라가 쇼와를 비롯한 과거를 반복 언급하는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프레드 데이비스²⁴⁾에 따르면, 노스텔지어의 소재를 낳는 것은 대조 그 자체가 아니라 "주관적 대조성"이다. 여기서 "좋은 과거와 나쁜 현재"라는 이분법이 발생한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현대적인 것에 반감을, 오래된 것들에 호감을 드러내는 이노가시라의 독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이자, 상실과 이탈의 감정"²⁵⁾이면서, 낭만주의적 감상으로 과거를 추억하는 태도²⁶⁾인 것이다. 그의 직업이 수입잡화상이면서

22) 손장희, 앞의 글, 12쪽.

23) "1955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21세기에 접어든 지 1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 앞의 논문, 13쪽.

24) F.デーヴィス, 『ノスタルジアの社会学』, 間場寿一·荻野美穂·細辻恵子 訳, 世界思想社, 1990, 앞의 논문, 11쪽에서 재인용.

25) Svetlana Boym, 앞의 책, p.XIII.

26) 시바 이치로는 원작에 대해 "그는 이렇게 '먹는' 일을 통해 오히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인도됨으로써 위로를 얻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어떤 종

빈티지 소품들을 다루는 업무를 자주 맡는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로웬델에 따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열망이 역사적인 유물, 유적, 문화유산, 골동품에 대한 보존 욕구로 표출”²⁷⁾되는 바,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 빈티지 잡화를 공급하는 이노가시라의 정체성은 바로 ‘과거를 분명하게 추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고객들에게는 소품을, 시청자들에게는 과거의 풍경을 공급하는 ‘과거 무역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반복적 애착과 쇼와에 드러내는 미소는 막연한 낭만적 제스처에 가깝다. “배가 고프다”는 시리즈의 상징적 대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사는 “배가 고파졌다”거나 “배가 고팠었지” 등으로 변주되지만 매화 반복되면서, 이노가시라가 앞선 풍경을 모두 잊고 식당 찾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기계장치의 신’이다. 허기 앞에서 앞서 본 쇼와의 추억은 힘이 없다. 그는 옛 애인을 추억하다가도(1-4), 혹은 “노스텔지 기분에 잠기자마자”(4-3) “배가 고프다.” 즉 <고독한 미식가>는 이노가시라의 시선을 통해 일본의 풍경과 좋았던 옛날을 시청자들에게 반복하여 전시한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과거의 그림자를 외면한 낭만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도 식욕 앞에서는 쉽게 잊힌다. 곧이어 그는 식당을 찾아 나선다.

3. 홍보를 위한 격렬한 독백과 과식

주지하듯 <고독한 미식가>의 핵심은 식사 장면이다. 일을 마친 이노가

류의 노스텔지어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논한다. 드라마에서는 이런 양상이 산책 장면에서 더욱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柴市郎, 앞의 글.

27) 데이비드 로웬델,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한명숙 역, 개마고원, 2006, 17-18쪽.

시라는 가게를 찾아 ‘고독한 미식’을 시작한다. <고독한 미식가>의 주된 매력은 식사 장면이 주는 편안함이다.²⁸⁾ 이노가시라는 열심히 일하는 보통의 중년으로 그가 식사하는 가게들도 화려한 고급 식당보다는 서민의 밥집이다. 그는 요리와 미식에 통달한 인물이 아니기에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감상도 담백하다.²⁹⁾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아저씨가 즐겁게 식사하는 수수한 모습은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 편안함은 재료나 기술을 강조한 미식 텍스트들과 차별되는 이 작품의 매력이 된다. 본 장에서는 식사 장면의 형성소들을 원작과의 차이, 홍보 목적의 연출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고독한 미식가>가 미식을 다룬 텍스트와 가장 다른 점은 ‘명인’이나 ‘기술’ 등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고급 음식점이나 달인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텍스트가 본격적인 미식 드라마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돈 많은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듯 저렴한 음식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한 미식가>가 원작이나 여타의 미식 서사물들과 차별되는 결정적인 이유라면 바로 실제로 운영되는 식당들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 점은 명인이나 특별한 재료, 기술의 부재보다도 <고독한 미식가>의 식사 장면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각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식당들은 방송국의 섭외에 따라 영업시간을 할애하는 시민들의 생업 현장이다. 그들이 섭외에 응하는 이유가 식당의 홍보에 있음도 물론이다. 이상란³⁰⁾에 따르면 극예술이란 집단적으로 창작

28) “특별하게 과장된 연기를 하지 않으면서 주인공인 이노가시라 고로의 일상과 음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지 않았나 생각한다” 마츠시게 유타카의 인터뷰, 『매일경제』, 앞의 기사.

29) <떡방 레전드 ‘고독한 미식가’ 한국 먹방과 달라도 너무 달라, 뭐가?>, 『동아일보』, 2018.5.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508/89977534/2>, 2024.1.30.

30) 이상란, 앞의 책, 127쪽.

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자본과 권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텍스트 내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독한 미식가>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제작된 시즌9, 10에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모습을 반영했을 정도로 현실과의 친연성이 높은 텍스트다. 여기에 <고독한 미식가>의 제작진들은 공들여 식당을 섭외한다.³¹⁾ 홍보라는 식당의 요구와 이에 응해야만 촬영이 가능한 제작진의 사정은 ‘고독’을 ‘수다’로, ‘미식’을 ‘과식’으로 변모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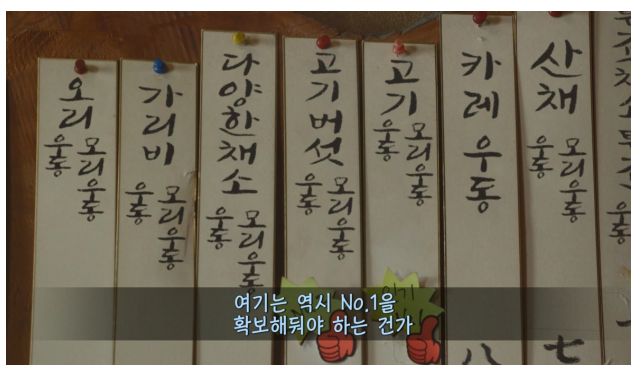
이에 따라 텍스트가 갖게 되는 원작과의 차이점, 드라마로서의 고유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노가시라는 식당을 선택하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식당에서 실망하고 돌아설 때가 있다. 12화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식당 사장과 육탄전을 벌이고, 14화에서는 “그래도 분명히 맛은 있지만, 오늘 이 고기 맛은 무언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³²⁾라며 아쉬워한다. 하지만 어렵게 섭외한 가게가 등장하는 TV 드라마에서는 사장이나 가게의 흥을 볼 수 없다. TV 드라마에서의 이노가시라는 모든 메뉴를 만족스럽게 먹고, 잘못된 식당이나 메뉴 선택도 하지 않는다. 그는 연전연승의 식탁에 앉는다.

둘째, 이노가시라의 메뉴 선택 방식에도 차이가 생겨난다. 정확히 말하

31) “<고독한 미식가> 제작진은 식당 선정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다. 어마어마하게 거리를 걷고 찾아 헤맨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제작진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 도심 변화가 아닐 것, 일본 아사쿠사처럼 예전 느낌이 있을 것, 조금 한적한 곳에 있을 것. 물론 맛집이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는 내 원작 만화에 다 담겨 있다. 화려하지 않고 서민적 분위기다. 제작진은 내 작품 취지에 맞는 식당을 찾으려고 거의 100번 넘게 원작을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원작 이미지에 맞는 음식점을 끊임없이 찾고, 먹고 또 먹는다.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로 원작에 가까운 식당을 제작진이 잘 찾는다. 여담이지만 제작진이 식당 섭외하느라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어떤 제작진은 한 시즌 찍는 동안 15kg 살이 찌기도 했다.” 구스미 마사유키 인터뷰. <‘고독한 미식가’의 혼밥론 “먹는 재미 자체가 사람을 위로하기도”>, 『한국일보』, 2018.6.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407.html, 2024.1.9.

32) 다니구치 지로·구스미 마사유키, 앞의 책, 146쪽.

자면 우유부단한 모습이 된다. 원작의 이노가시라는 매번 메뉴를 신속하게 고른다.³³⁾ 반면 드라마에서의 그는 메뉴판 앞에서 매번 미간을 찌푸린다. 친숙한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그의 반복적인 좌고우면은 가게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 여러 메뉴 사이에서 그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가게는 시청자들에게 더 오랜 시간 많은 메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시즌8 4화. 식당 메뉴 목록을 카메라가 비추는 장면.

이노가시라의 주름이 퍼질 때까지 메뉴판을 훑는 카메라는 메뉴목록을 한 번 더 안내한다. 여기에 주인공은 사장에게 음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요청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음식의 재료나 조리법들을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가게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나눠 맡는다. 그들은 단순히 배경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주인공과 다른 메뉴를 주문하

33) “나는 음식을 주문할 때 시간을 끌지 않고, 정확히 말한다. 꾸물대면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 다니구치 지로·구스미 마사유키, 앞의 책,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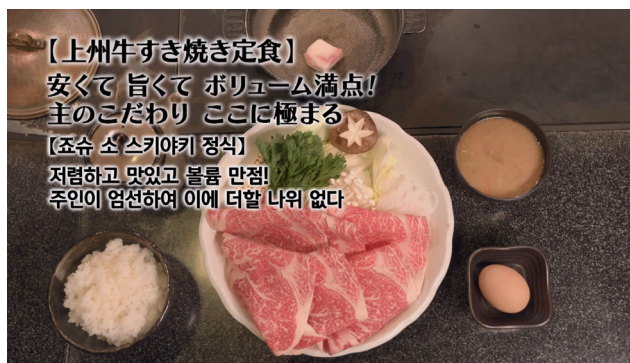
여 식당의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화면에 담는다. 이노가시라도 옆 테이블을 훑쳐보면서 “저 전복 덮밥, 남자의 스테이크 마음마저 유혹하는 미모다”(4-3) 등의 평가를 덧붙인다. 특히 단골 손님들은 가게 입장과 동시에 주문을 끝내면서 해당 식당의 주력 메뉴를 자연스럽게 안내한다든가 숨겨진 메뉴를 소개하기도 하고, 사장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가게의 정보 등을 전달하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시 돼지 갈비 에피소드(7-10)에서는 이노가시라도 한창 식사 중일 때 단골손님이 등장하여 생선구이를 주문한다. 이노가시라도는 그에게서 “일부러 고기를 주문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보고 “상당한 달인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는데, 이 장면을 통해 시청자들은 배경이 되는 식당은 갈비집임에도 메뉴가 육류로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은 독백의 과잉을 통해 맛을 표현한다. 때로는 ‘전투와 경쟁의 수사’를 통해 맛의 전달을 꾀한다. 이노가시라도의 식사에는 고독이 전제된다. 그렇기에 대화 없이 식사하는 주인공이 음식 맛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는 <고독한 미식가>의 성패에 핵심 과제가 된다. 연극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그와 대화하는 거울형 인물을 배치하거나, 때때로는 독백이나 방백 등의 연극적 장치를 둔다. <고독한 미식가>의 주된 발화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백인데, 식사 장면에서는 그 독백의 양이 부쩍 늘어나면서 일견 수다스럽기까지 하다. 이노가시라도는 맛집 탐방가나 음식 맛에 정통한 평론가는 아니다. 이노가시라도의 혀는 평범한 수준이기에 맛의 묘사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의 언어가 초라하지는 않다.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인물이지만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며 성공적인 영업을 이어온 그의 입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번번이 음악, 스포츠, 전투 등 열정이나 경쟁을 연상시키는 어휘들을 풍성하게 활용하여 혀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중화 냄비는 약기다. 사장님이 베테랑 뮤지션으로 보이기까지 한다”(2022 연말

스페셜), “간 승부다. 주특기를 받아주지”(10-3), “승부는 뚜껑을 열기 전 부터 정해져 있었다. 내 완패야. 1라운드 5초, KO패”(3-11), “적지인 선술 집에서 이런 큰 시험.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장렬한 치고받기. 오늘 밤 이 링에 선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큰 환호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 군”(7-8), “야채를 태워버렸다. 병사를 개죽음으로 만든 기분이야”(8-8)와 같이 ‘전투’나 ‘대결’과 같은 이미지는 ‘격렬함’을 부여한다.

격렬한 독백과 함께 한 끼가 과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는 이노가시 라가 식당에 만족했음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더 많은 메뉴를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한다. 회차별로 차이는 있으나 그는 보통 서너 가지의 메뉴를 주문한다. 카메라 역시 나온 음식에 대해 기대하는 자막을 내보낸다. 그럴 때 마다 이노가시라는 ‘고독한 대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2〉 시즌5 12화. 음식을 소개하는 장면.

본편이 끝난 뒤 방영되는 〈불쭉 쿠스미(ふらっとQUSUMI)〉는 식당 홍보에 화룡점정을 찍는다. 원작자 쿠스미 마사유키는 해당 회차의 식당을 방문하여 본편에 나오지 않은 메뉴를 주문하기도 하고, 실제 사장이나

점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약도와 영업 시간 등이 함께 제시되면서 텍스트 속 주인공의 고독한 식사는 허구의 가면을 벗는다.



<그림 3> 시즌3 5화. 원작자 쿠스미 마사유키의 소감과 함께 식당의 위치가 안내되는 장면.

이상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고독한 미식가>는 허구적 드라마임에도 그 핵심이 되는 식사 장면의 구성에는 홍보물로서의 '필요'가 상당히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판의 경우, 도라마 코리아가 제작하는 상세한 자막은 식재료, 조리법, 식사문화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³⁴⁾ 여기에 드라마 속의 식당들은 화면 속의 약도와 영업 정보, 인터넷의 다양한 후기들, 혹은 안내 책자³⁵⁾ 등을 통해 현실과 접점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홍보의 영역은 대안해협 너머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34) 이 정보들은 자막 구성의 양적 제약을 넘어서기도 하나, 한국인 시청자가 필요에 의해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임형재·이토 스미코, 앞의 논문, 499쪽.

35) 쿠스미 마사유키, 『고독한 미식가 맛집 순례 가이드』, 박정임 역, 이숲, 2015.

하지만 시즌이 10개를 넘을 정도로 꾸준히 방영된 인기 시리즈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식사 장면이 오로지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그보다는 주인공이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홍보하며 그가 ‘보는 것’과 ‘먹는 것’에서 공통되는 요소들의 함의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4. 쌀밥에 재현된 탈역사적 일본

전술했듯이 원작이 드라마로 각색되고 현실의 식당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텍스트에는 음식점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채택되고 주인공의 성격도 일부 변화하게 된다. 그의 독백에는 경쟁적 수사가 활용되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드라마에 격렬함을 부여하고 이에 더해 과식은 더 많은 메뉴가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텍스트의 중핵이랄 수 있는 식사 장면이 홍보만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독한 미식가>가 꾸준히 사랑받았던 데에는 중년 남성의 점잖은 식사가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2장에서 이노가시라의 산책이 ‘좋았던 일본의 옛날’을 막연하게 긍정하고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언급한 바 있다. 그때 언급된 ‘쇼와’와 달리 산책과 식사 장면을 넘나들며 발견되는 기호가 있으니 바로 ‘일본’이다. 이노가시라에 의해 반복되는 ‘일본’은 ‘쇼와’ 일본을 소환하는 동시에 압도하는 것이다. 이노가시라가 그리워하는 쇼와는 근대 이후의 일본, 그것도 전후 고도 성장기에 제한될 뿐더러, 구체적인 기억을 재생하지도 못한 채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반면 ‘일본’은 그의 산책은 물론이며 식사 장면에서도 살아남아 반복된다.

산책 장면에서 ‘일본’은 곧잘 반복된다. 이노가시라는 “새로운 다다미의 향으로 기분이 상쾌해졌군. 나는 정말 일본인이구나”(5-8)라고 깨닫고, “바다를 건너 에도(江戸)”라는 기획전을 담당할 고객을 방문(5-2)하면서 일본의 전통 모형 가옥들 사이를 걷는다. 남편 회사에 놓을 소품으로 “일본 문화가 느껴지는 것(2-2)”을 부탁하는 프랑스인 친구를 위해 아사쿠사에서 전통소품 가게들을 둘러보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일본’이라는 기호는 이어 식사 장면에서 재차 등장한다. 이노가시라는 일본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음식에 매개로 실감하고는 한다. <고독한 미식가>의 산책 장면에서 반복되는 일본은 쇼와와 달리 허 끝에서 되살아난다. 그는 “예스러운” 가게를 찾아 튀김을 먹으며 “맛있어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문화라기보다는 축제야”(2-2)라고 감탄한다. 그리고 일본화된 양식³⁶⁾을 먹으면서도 “스테이크를 젓가락으로 우격우격”, “이것이 일본인의 행복”(8-8)임을 느낀다. 텍스트에서 일본인이라는 행복을 말하는 것은 주인공만이 아니다. 시금치 깨소금 무침과 같은 간단한 반찬이 소개될 때조차 “일본인이라 좋구나”(8-10)라는 자막이 나온다.

<고독한 미식가>에 등장하는 여러 음식 중 특히 쌀은 이노가시라로 하여금 일본인이라는 행복을 실감하게 하고, 그 정체성을 반복하여 자각하게 한다. 아프가니스탄 식당(3-5)처럼 쌀밥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는

36) 화양절충이란 근대의 일본이 서양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미각에 맞게끔 변용한 음식문화를 말한다. 육류 공급의 확대, 근대적 합리성의 수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간단한 조리법과 효과적인 보관법의 전파, 새로운 식재료의 유통은 서양 음식의 변용 및 보급을 더욱 확대하였다. 일본의 음식미학에 맞는 서양의 식재료나 조리법이 선택되는 가운데, 쌀밥과의 조화는 화양절충 요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이 시제, 「근대일본의 화양절충(和洋折衷) 요리의 형성에 나타난 문화변용」, 『아시아리뷰』 제5권 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5, 41-69쪽.

쌀밥을 찾는다. 그는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인물임에도 술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라도 쌀밥이 있다면 안주를 반찬 삼아 한 끼를 즐기곤 한다. “하얀 쌀밥을 신으로 생각하는”(5-3) 그는 냉동밥 밖에 없는 경우라도 “밥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7-8)라고 기뻐하고, 한국에 출장을 와서 식사할 때조차 “호랑이 등에 날개, 나한테는 흰쌀밥이야”(7-9)라며 유독 쌀밥을 강조한다. 에피소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쌀밥에 양념이나 남은 음식들을 비벼 먹는 장면은 그가 식사를 마무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노가시라가 갈구하는 쌀밥은 그의 개인적 취향이나 동아시아인의 일반적인 주식의 개념 정도로 볼 것이 아니다. 그보다 쌀밥 역시 일본이라는 기호의 하위 항목으로 보아야 옳다. 오누키 미에코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있어 쌀이란 단순한 식재료나 주식 그 이상이다. 쌀의 재배와 확보가 일본 역사에 있어 삶의 투쟁 그 자체이며 나아가 일본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쌀은 일본인이 역사상 중국인·서양인이라는 다양한 ‘타자’와 조우하며 문화적 교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자기 인식 및 재인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쌀과 더불어 수전(水田)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상징으로서의 쌀의 중요성은 그것이 일본인에게 매우 소중한 ‘우리 식물’일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인 논에도 기인한 것이다. 이 두 측면이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상징으로서 쌀의 중요성을 강화해 왔다.³⁷⁾

텍스트에는 쌀밥이 일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러 번 반복된다.

37) 大貫美恵子, 『コメの人類学—日本人の自己認識』, 岩波書店, 1995, 5., 아사쿠라 도시오, 앞의 책, 274쪽에서 재인용.

“스테이크라는 수렵 민족의 왕을 덮밥에 올려 맞이하는 농경 민족 일본인. 역시 밥은 이 섬나라에겐 식(食)의 신체(神体)”(4-3)라는 이노가시라의 독백에는 쌀밥을 경유하여 ‘일본적 신체’와 일본이 어떤 ‘민족’인지를 강조하려는 텍스트의 전략이 함축되어 있다. 쌀밥을 통한 일본적 정체성의 강조는 니이가타현 마치시를 찾아간 에피소드(3-11)에서 특히 강렬하게 나타난다. “설국의 산간에 이만큼의 논을 만든 건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독백에는 쌀밥과 국토를 필연적인 일본의 형성소로 파악하는 자세가 견지되어 있다. 황금빛 들판에 압도당한 이노가시라는 식탁에서도 감탄사를 연발한다. “작은 숲 안에 일본의 사계절을 쌀과 함께 지었다. 숲 안에 일본이 있다. 역사가 있다. 자연이 있다. 우주가 있다.”

텍스트에서 일본은 이처럼 배가 고파진 이후에 더욱 강렬하게 강조되는 기호다. 식사는 허기를 해소하고 영양을 보충하여 삶을 연장하는 생명체의 기본적 행위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매우 일본적인 음식인 쌀밥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텍스트가 일본적 정체성을 재차 삼차 강조하고 있음에는 재언의 여지가 없다. “마치 내 몸은 제철소. 위장은 그 용광로”, “나는 마치 인간 화력발전소”(1-8)라고 말하는 이노가시라의 신체는 음식을 제련하여 일본을 화면에 재현하는 공장에 다름 아니다. 이노가시라의 산책에서 전개되었던 쇼와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와 그 실패를 배제한, 쇼와 30년 이후의 고도 성장기만을 편식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좋았던 옛날은 허기짐 앞에서, 그리고 드라마의 중심 무대인 식탁에서 허무하게 사라졌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기호는 식욕 앞에서 더욱 생생하게 살아남아, 그 구체적 매개를 쌀밥에 일임함으로써 일본인이라는 행복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과거의 소환은 피상적인 데 그친다. 수입잡화상으로서 이노가시라가 취급하는 잡화들은 과거의 물건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쓸모가 있고 아름답다고 판단, 선별된 것들이다. 작중 이노가시라가 쇼와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시절을 배제하고 고도 성장기의 일본을 막연히 추억하는 태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쌀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텍스트는 쌀에 얽힌 역사의 심층이나 다양한 목적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채³⁸⁾ 쌀에게서 행복함을 비춘다. 이노가시라는 술 안에서 “역사”와 “자연”과 “우주”를 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고시히카리, 그 빛에 한 점의 그림자도 없다”(3-11)라고 독백한다.

요하자면 <고독한 미식가>는 그림자를 배제한, 밝고 명랑한 텍스트다. 이노가시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쇼와의 좋았던 옛날을 본다. 섭외된 식당들도 한 곳도 빠짐없이 맛집이다. 그 식탁에서 주인공은 일본인이라는 실감과 행복을 느끼며 한 점의 그림자도 없는 쌀밥을 반복하여 즐긴다. <고독한 미식가>가 추구하는 것은 일관되게 일본에서 걷고 먹는 즐거움을 재현하는 일이다. 군국주의 시절의 쇼와 그리고 어찌면 있었을지도 모를, 식당에서의 불편함, 쌀에 얽힌 일본의 역사까지는 결코 파고들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고독한 미식가>는 현대의 일본을 구성하는 과거의 밝은 면을 편식하는 탈역사적 텍스트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이러한 탈역사적 태도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시청자들에게도 편

38) 일본사에서 ‘농사’가 갖는 중요성은 무사 중심 사회였던 에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에도 시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도시형 조닌 사상에만 자칫 주목하기 쉽지만, 원래 에도 무사 사회의 이념은 무사가 농촌에 의지하는 바에 존재했기 때문에 사농공상 가운데 ‘농’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에 의지가 컸다고 하여 일본의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무사를 공양하기 위한 막대한 연공 부담이 농민들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도 고통스러워졌다.” 또한 농민들이 일본사에 끼친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 “가혹한 연공이 부과되었을 때 농민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묵묵히 따르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농민들은 저항운동 격인 농민봉기 ‘하쿠쇼잇키’로 영주에 대항했고 이것이 결국 막부 말기에 세상을 바꾸는 민중봉기 ‘요나오시잇키’에 이르게 되었다.” 스에키 후미히코, 『일본사상사』, 김수희 역,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22, 234-237쪽 참조.

안하게 유통될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다.

5. 결론

<고독한 미식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일본에서 음식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가 붐을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10개의 시즌을 이어올 정도로 꾸준했다. 이 글에서는 <고독한 미식가>를 구성하는 기호들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에 내재된 주제들에 천착하였다. 특히 텍스트가 액자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산책과 식사 장면을 통틀어 자주 반복되는 대상들을 포착하여 여기서 파생되는 의미들을 노정해보았다.

이를 통해 밝혀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 이노가시라는 과거 지향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산책자인 그는 거리의 풍경을 보며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에는 긍정적인, 현대의 산물들에는 부정적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낡은 거리에서 종종 쇼와를 발견한다. 하지만 이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쇼와의 좋은 시절만을 선택하여 낭만적 시선으로 보는 것이며 식욕 앞에서 쉽게 잊힌다. 둘째, 식사 장면에도 긍정적인 태도만이 견지된다. 이는 현실의 식당을 제외해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노가시라가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 식당의 풍경, 카메라의 움직임과 상세한 자막, 주인공의 음식에 대한 감상 등은 홍보의 효과를 창출해낸다. 셋째, 여러 장면에 걸쳐 일본적 정체성이 강조된다. 이는 산책과 식사 장면을 막론하고 여러 에피소드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쇼와가 군국주의 시대의 그림자를 배제하고 낭만적인 것으로만 묘사되었듯이, 일본적인 정체성이 성립하기까지, 혹은 주인공이 이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려움이나 고난은 묘사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주인공이 바라보는 ‘고시히카리’에는 어

편 그림자도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고독한 미식가>는 산책과 음식을 매개로 일본을 전시하면서도 구체성까지는 확보하지 못하는, 쇼와나 일본을 이루는 그림자를 배제한 밝고 편안한 드라마, 탈역사적 드라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많은 언론과 리뷰에서 텍스트의 매력으로 뽑았던 편안함이 식사 장면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편안함과 탈역사적 태도는 <고독한 미식가>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등의 동아시아 시청자들에게도 편안하게 유통될 수 있는 비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고독한 미식가>의 인기는 이 드라마가 일본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통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고독한 미식가>는 오랜 시간 많은 편수가 방영되었고 앞으로의 추가 제작 가능성³⁹⁾도 있는 만큼, 이 글의 분석은 일각에 불과하며 텍스트를 읽는 다양한 관점 중 하나에 그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텍스트가 동시대 일본과 한국의 미식 텍스트와 변별되는 또 다른 지점들, 제작진의 의도와 무관하게 작품 속의 식당과 지역들이 관광 콘텐츠로 활용되는 양상 혹은 가능성 등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9) 마츠시게 유타카의 건강 문제로 향후 제작 여부는 현시점에서 확실치 않다. 배우의 교체도 고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지 시청자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일본 주간지 주간실화는…‘고독한 미식가’ 제작진의 말을 인용해 마츠시게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TV도쿄가 드라마의 향후 방향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제작진은 “마츠시게는 최근 위장과 장 건강이 좋지 않고 식욕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먹을 수 없는 마츠시게는 이노가시라 고로가 아니니까”라고 말했다…‘고독한 미식가’의 배우가 교체될 수도 있다는 소식은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팬들은 이노가시라 고로는 곧 마츠시게라며 배우가 교체될 바에는 차라리 시리즈를 증명하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주년 맞은 레전드 먹방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심각한 소식 전했다>, 『인사이트』, 2022.12.13., <https://www.insight.co.kr/news/422345>, 2024.1.8.

참고문헌

1. 기본자료

TV도쿄 제작, <고독한 미식가> 시즌1-10, 도라마 코리아(OTT), <https://dorama.kr>, 2012.1.5.-2022.12.23.

다니구치 지로·구스미 마사유키, <고독한 미식가>, 박정임 역, 이숲, 2010.

2. 논문과 단행본

권두현, 「맛의 경험과 테크놀로지의 신체 - 1980년대 이후 한일 대중서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67권, 국제어문학회, 2015, 71-111쪽.

손장희, 「일본 대중음악사 서술에서의 쇼와-헤이세이 시대의 도식화: '쇼와 가요곡' 노스텔지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제22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8, 8-40쪽.

이상란, 『희곡과 연극의 담론』, 연극과 인간, 2003.

이시재, 「근대일본의 '화양절충(和洋折衷)' 요리의 형성에 나타난 문화변용」, 『아시아 리뷰』 제5권 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5, 41-69쪽.

임형재·이토 스미코, 「OTT시대, 문화 간 소통을 위한 자막의 구조 변화와 기능 연구: '고독한 미식가'(시즌9)의 한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6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477-505쪽.

구스미 마사유키, 『고독한 미식가 맛집 순례 가이드』, 박정임 역, 이숲, 2015.

데이비드 로웰, 『과거는 낫선 나라다』, 김종원·한명숙 역, 개마고원, 2006.

스에키 후미히코, 『일본사상사』, 김수희 역,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22.

아사쿠라 도시오, 『일본음식 인문학 연구노트』, 김규열·김용의·유재연 역, 민속원, 2022.

F.デーヴィス, 『ノスタルジアの社会学』, 間場寿一·荻野美穂·細辻恵子 訳, 世界思想社, 1990., 손장희, 「일본 대중음악사 서술에서의 쇼와-헤이세이 시대의 도식화: '쇼와 가요곡' 노스텔지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제22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8, 8-40쪽에서 재인용.

大貫美恵子, 『コメの人類学—日本人の自己認識』, 岩波書店, 1995., 아사쿠라 도시오, 『일본음식 인문학 연구노트』, 김규열·김용의·유재연 역, 민속원, 2022에서 재인용.

Hugo Vowels, *Storytelling and Drama: Exploring Narrative Episodes in Plays*, Amsterdam: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2010.

Manfred Pfister, *The Theory and Analysis of Drama*, John Halliday t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3. 기타자료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아저씨 먹방이 인기 끈 이유〉, 『매일경제』, 2018.1.11., <https://www.mk.co.kr/news/world/8148731>, 2023.12.22.

〈먹방 레전드 ‘고독한 미식가’ 한국 먹방과 달라도 너무 달라, 뭐가?〉, 『동아일보』, 2018.5.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508/89977534/2>, 2024.1.30.

〈‘고독한 미식가’의 혼밥론 “먹는 재미 자체가 사람을 위로하기도”〉, 『한국일보』, 2018.6.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407.html, 2024.1.9.

〈나혼자 이렇게 산다⑤: 자막 찾아 헤메지 않고 본 ‘고독한 미식가’〉, 『그린 포스트 코리아』, 2019.9.15.,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86#google_vignette, 2024.1.10.

〈혼밥은 결핍 아닌 자유…고독한 식사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죠〉, 『매일경제』, 2022.8.23., <https://www.mk.co.kr/news/economy/10432284>, 2024.1.30.

〈10주년 맞은 레전드 먹방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심각한 소식 전했다〉, 『인사이트』, 2022.12.13., <https://www.insight.co.kr/news/422345>, 2024.1.8.

柴市郎, 『『孤独のグルメ』私論 -〈彷徨〉する〈空虚〉-』, 『尾道大学日本文学論叢』(2), pp.1-7, 2006.12., <https://onomichi-u.repo.nii.ac.jp/records/341>, 2024.1.2.

〈座談会『孤独のグルメ』と「空想地図」原風景としての郊外.〉, 『東京人』34(5), 都市

TV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孤独のグルメ)> 연구 - 그림자의 배제와 탈역사적 일본의 유통 / 허재홍 305

出版, 2019.5., pp.26-35., <https://cir.nii.ac.jp/crid/1522543653354717952>, 2024.1.31.

“New Year’s Eve in Japan: Watching a hit TV show about a man who eats alone”, *The Washington Post*, 2017.12.6.,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ew-years-eve-in-japan-watching-a-hit-tv-show-about-a-man-who-eats-alone/2017/12/21/116c56f2-e10a-11e7-b2e9-8c636f076c76_story.html, 2023.12.22.

Abstract

A Study of TV Drama, *The Solitary Gourmet* -Exclusion of shadows and distribution of non-historical Japan

Hur, Jae-hong(Sogang University)

This paper's aim is try to explore the themes inherent in the text by analyzing the symbols constituting *The Solitary Gourmet*. In addition to the meal scene of the drama, we will expand the meaning of the text by expanding the gaze of the analysis to the walking scene.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protagonist, Goro Inogashira, is embodied as a past-oriented character, and even in walks, he send positive views in the past and negative views in the present. Nostalgia for the good old days often appears as Showa. However, this stops at the romantic gaze reminiscing about the good days with Showa and is easily forgotten in front of hunger. Second, only the positive aspects of the restaurant are found in the meal scene. This is due to the promotion of the restaurant that was invited. the protagonist's monologue and the restaurant's landscape are transformed into different looks from existing gourmet dramas for promotion. Third, Japanese identity is emphasized in many scenes. Descriptions emphasizing Japanese identity and the joy of being Japanese focus on reproducing only the happy aspect, and rice is particularly used as a medium.

Therefore, there is scope for *The Solitary Gourmet* to be interpreted as a comfortable and post-historic drama that excludes the shadows of Showa and Japan. The success of *The Solitary Gourmet* can be seen as a proof that the drama succeeded in distributing a positive image of Japan.

(Keywords: *The Solitary Gourmet*, Japanese Drama, TV Drama, Nostalgia, gastronomy)

TV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孤独のグルメ)> 연구 - 그림자의 배제와 탈역사적 일본의 유통 / 허재홍 307

논문투고일 : 2024년 1월 12일

논문심사일 : 2024년 2월 12일

수정완료일 : 2024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19일